

젠더 갈등의 ‘선택적 혼종성’ 양상에 대한 신학· 윤리적 제언

백소영 (강남대학교 초빙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대한민국 후기근대의 사회적 상황과 영페미니스트의 정체성 운동

1. 일상의 페미니즘, 영페미니스트의 등장
2. 여혐과 남혐의 기괴한 생존 전략, ‘선택적 혼종성’

III. 영페미니스트들의 ‘선택적 혼종성’ 전략인가 욕망인가?

IV. 후기근대적 “위험사회”와 공동체적 생존을 위한 연대

V. 정체성과 연대 사이, “존재의 기공성”과 사회적 영성

VI. 닫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5>

• ABSTRACT •

A Theo-Ethical Proposal on the ‘Elective Hybridity’ Phenomena in the
Gender Conflicts of the 21st century Korea

Prof. Baik, Soyoung (Kangnam University)

With an intensive concern on the ‘young-feminists’ who have rapidly grown as a protesting group against the existing patriarchal culture, this article analyzes their rising as a social phenomenon emerged in the late modern neoliberal Korean contexts. The young-feminists are women,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who have strong self consciousness at massive scale, while they belong to the generation which has experienced harsh and competitive economic environments of the 21st century neoliberal Korea. Witnessing the ‘elective hybridity’ in the ‘mirroring strategy’ of the young-feminists, the combination of the feminist actions and the selective acceptance of profitable resources from the present patriarchal institutions and cultural presuppositions, however, this article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reinforcing current neoliberal orders as the results of ‘elective hybridity’ strategy. As an alternative feminist strategy for imaging and practicing a new group interaction, which would result in the advent of a gender-equal society, as a concluding remark,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orosity of being,” the ontological ground of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while retaining the boundary of an individual/an identity group.

Key words: Young-feminists, Mirroring Strategy, Elective Affinity, Neoliberal World, the Porosity of Being

I. 들어가는 말

'영페미니스트'의 주장과 실천이 최근 수년 사이 광장(역)으로 나오고 있다. '여성'이라는 범주로 연대하여 운동성을 띤 이 움직임은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중에게 가시화되었고 해화역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이 집단(혹은 세력)의 출발은 사실 IMF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 재편되던 시점인 199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페미니스트' 1세대인 정연보는 '영페미니스트'를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까지 대학을 기반으로 활동한 젊은 엘리트들이었으며, 저항주체로서의 '여성'을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이론적, 실천적 고민들을 함께 했던 세대"라고 정의한다.¹⁾ 그렇다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된 현재의 영페미니스트는 '영페미니스트 2.0'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물론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큰 범주에서 1, 2 세대를 아우르는 '영페미니스트'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절, 기술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때에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한 이들이다. 논자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 생겼다. 과거에 비하여 한 개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제약을 받는 일이 가장 줄

1) 이 논문은 대학 시절 페미니스트 웹진을 운영했던 동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페미니스트'로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되돌아보며 이를 질적 연구 논문으로 정리한 글이다. 정연보,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한국여성학』 제31권 3호(2015): 31. 이 외에도 영페미니스트에 대한 자기 성찰로 단행자료 2건, 연속자료 8건, 국가자료 2건이 검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김현영 "차이에 대해 말하기, 기억과 치유의 정치학을 위하여: '영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계급과 문화 정체성"(서울: 생각의 나무, 2001),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네티미사: 우리에게도 빛과 그들의 역사가 있다』(서울: 나무연필, 2017)가 있다.

어든 이 시절에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범주로 젊은 여성들이 연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목할 만한 것은 영페미니스트와 동시대인인 젊은 남성들의 ‘남성 연대’ 역시 활발하다는 점이다. 여성 연대 만큼 가시화된 오프라인 운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남초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성·확산되는 여성혐오적인 언어들에 통해 하나의 동질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이수역 근처 맥주집 젠더 갈등은 두 정체성 집단이 오프라인에서 부딪힌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한 여성 혐오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젠더 갈등으로 발전했다. 누가 먼저였건 쌍방이 건넨 폭력적 언어들에 젠더 갈등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내 클리가 너의 소추보다 크다.”²⁾ 상대방 남성을 비하하며 던진 여성의 한 마디는 그저 ‘민망한’ 색정적 언사가 아니다. 1990년대 대학가 영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읽혔던 여성 정체성에 관한 페미니스트 언어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드디어 메갈을 실물로 보네~”³⁾ 남자 테이블에서 발화된 이 말도 온라인 설전을 통해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를 적대시해온 남성 연대의 흔적을 반영한다. “페미는 정신병”이라거나 “여대와 여가부는 없어야한다.”는 적대감은 ‘일간베스트’로 대

2) “너 소추지?” “메갈X” ... 이수역 주점서 난무한 남녀 비하전, 『뉴스시』, 2018. 11. 17일자 온라인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6_0000475596&clID=10201&pID=10200

3) ‘메갈은 메르스 갤러리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때에 최초의 바이러스 유포자로 지목된 여성들이 홍콩에 쇼핑을 다녀오기도 열이 나는 것을 숨겼다는 보도로 인해 일베 등의 남초사이트에서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발언이 이어졌는데, 이것이 오보임이 밝혀지고 오히려 최초 유포자의 생물학적 성이 남성임이 밝혀지면서 젊은 여성들의 온라인 역공격이 드세졌다. 처음에는 디시인사이드에 ‘메르스 갤러리’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시작했는데(2015년 5월 29일) 여러 번의 사이트 이동 끝에 이름을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안의 딸들’과 메르스 갤러리를 합성한 단어 ‘메갈리아’로 명명하게 되었다.

표되는 소수의 극단적 남성 집단만의 정서가 아니다. 2019년 새해 벽두에 들려온 연세대 총여학생회 폐지에서 드러난 폐지 찬성률 78.92%라는 숫자는,⁴⁾ 적어도 남성들 간에는 같은 답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연세대를 마지막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전적으로 남성들의 '백래쉬'로만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야말로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개인으로 평가되며 살았던 후기근대인들의 의미를 반영한 결과로도 충분히 읽힐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 내 총여학생회의 역할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적어도 남성들이 여성 조직이나 여성 의제에 대해 동일한 반감을 가지고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이와 같이 몇 년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의 현상을, 논자는 근대적 기획의 모순이 드러나는 후기 상태의 한 징후로 보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특히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는 적대와 혐오의 기표가 된 '메갈리아' '워마드'를 포함하여 영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이라는 범주로 연대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현상 분석 과정에서 영페미니스트들의 당사자성을 존중하여 그들의 자기 해석을 포함하되, 논자의 신학윤리적 입장에서 영페미니스트 전략의 '혼종성(hybridity)'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개별 경계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만큼, 더 큰 사회적 의제를 향한 연대나 상호성장을 위하여 타자의 의미와 소통하며 경계의 확장/재구성을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논자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존재의 기공성(the porosity of being)" 개념을 통해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능력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는 영페미

4) '서울 대학 총여학생회 다시 전멸... 연세대도 결국 폐지', 『뉴스스』 2019년 1월 4일자 온라인 기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4_0000521568&cID=10201&pID=10200

니스트의 자기 해석과 신학적 성찰을 만나게 한 논문으로는 첫 시도로서,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 구성원의 세대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공동체적 실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대한민국 후기근대의 사회적 상황과 영페미니스트의 정체성 운동

1. 일상의 페미니즘, 영페미니스트의 등장

성차가 점점 덜 중요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근대 사회의 후기 상태에서 오히려 정체성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호명되는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 변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영페미니스트들의 자기주장이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 엘리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했거니와, 그들이 사회로 진출할 무렵 우리나라는 빠르게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다. 당시 처음 소개된 낯선 단어인 '고용유연성'은 기성세대의 이른 퇴직(퇴출)은 물론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 인력에게도 질과 안정성 면에서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좁고 열악해진 고용 시장이건만, 극단의 개별 경쟁으로 승부하는 신자유주의적 원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부장적 습속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 남성들은 젊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조직 내 생존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페미니스트 세대는 전문가 개인이요 근대 주체로 훈련받아온 자신들의 생애사와 여성으로 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 사이에 큰 간극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생존'을 위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의 대중적 전개가 서양에 비해 이렇게나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과 미국에서 1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의 법적·제도적 권리 증진을 위해 투쟁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의 대한민국은 근대 주체로 자기인식을 확립한 여성의 숫자가 지극히 적었거니와, 곧바로 이어진 식민 현실 속에서 젠더 이슈보다는 '독립'이라는 더 큰 시대적 과제를 놓고 조선인 정체성과 연대가 우선되었다. 또한 서구에서 2기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비판했던 1960년대~70년대의 대한민국은 남북분단과 군부독재라는 현실 속에서 '통일'과 '민주화'라는 과제가 다른 담론들의 공론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다. 더구나 페미니즘 이론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유입되던 197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화의 절정기로서 근현대 가부장제의 구조가 가장 견고하게, 그리고 대중에게 제법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자수성가형 중산층이 가장 많이 형성된 때였고 '전업주부' 1세대의 경우는 가정에 전적으로 배치된 상황을 생산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향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급격한 근대화를 겪은 까닭에 여전히 잔재해 있는데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소환되어 강화되었던 유교 사상은 여성들의 자리를 봉건화 하는데 한몫했다. 때문에 당시 대학에서는 페미니스트 이론을 통해 근대가부장제의 모순을 말했지만, 여대생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들에게 자기문제로 인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⁵⁾

그러나 후기근대 사회를 사는 젊은 여성은 논자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다. 적어도 원칙상은, 전문가이고 개인이라면 이 세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다. 모순되게도 젠더 갈등은 근대 사회의 원칙 때문에 발생했다. 전근대 사회의 세습 세력이었던 귀족과 제사장들을 향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쳤던 시민 남자들의 의도는 분명

5) 이런 상황에서 영페미니스트의 할머니 세대가 '내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그들의 어머니 세대는 내가 되는 것보다 '여성이 되는 것'의 문화 제도적 무게에 압도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대한민국 근대 사회의 전기와 중기 사회를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 인식에 관하여는 백소영,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을 참고하라.

히 자신들의 해방이었다. ‘만인’에 여성을 포함하는 계획은 필시 없었을 거다. 그러나 시민 남자들을 해방시킨 근대시민법의 보편적 힘은 결국 여성들을 근대 주체로 서게 했고,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엔 영페미니스트들 시절에게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는 여성들이 대중적 힘을 가질 만큼의 역량과 수가 확보된 것이다.

2. 여혐과 남혐의 기괴한 생존 전략, ‘선택적 혼종성’

영페미니스트들이 전개한 일상의 페미니즘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비롯하여 남초 사이트의 가부장제적 여성 혐오에 맞대응하는 이른바 ‘미러링’ 전략이다. “남자 목소리가 어디 담을 넘어?” “남자가 조신하게 집에 들어왔어 있지 왜 싸돌아다니는 거야?” 하나의 놀이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이 흐름을 재빠르게 포착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센 언니’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미러링을 대중적으로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남성혐오의 생산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대한 ‘미러링’이다. 혐오발언을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한 것으로 말하자면 젊은 남성들이 먼저였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김치녀” “된장녀” “한녀(한국여자)”이다. 이는 김치와 된장을 먹는 한국 여자를 총칭하여 범주화한 것인데, 한국여자의 특성이라고 묘사된 단어들인 “낙태충(낙태하는 여성)”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번은 때려야 한다는 발언)” “좌썸년(진보성향의 여자)” “보꾸기(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친자로 속이는 여성)” “맘충(생산 노동은 안하면서도 모성 실천에 무책임한 여성)” 등이 대표적인 여성 혐오 언어이다.⁶⁾

6) 이 언어들은 일간베스트와 메갈리아의 혐오 언어들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공한 장소연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장소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 정치: 일간베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가부장제 5천년의 한결같은 문화적 습속이니 남초 사이트의 온라인 여성 혐오가 새로운 현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남성들의 여성 혐오 발언 중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전근대적 여성 이해가 후기근대적 욕망과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김치녀”의 대조되는 말로 사용하는 “개념녀” “스시녀(일본 여자)”는 데이트 할 때 더치페이를 잘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자에게는 순종적인 여성상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돈으로 ‘기생하는 여자’는 김치녀이지만,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서나 인식 면에서는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개념 있는’ 여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베가 원하는 질서가 가부장적 제도라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바라는 욕망은 접어야 옳다. 여성은 주체적 인간이 아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탈성적 전문가”로서 충분히 생산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후기근대적 여성을 향한 기대는 ‘유리한’ 지점으로 선택한다. 생산 노동을 하지 않고 남자에게 기대는 여자를 혐오하면서도, 한편으로 ‘번듯한 임금노동의 자리는 남자가 먼저’인 것이 당연하다는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칙상 공존하기 힘든 다른 두 사회의 제도적 전제가 혼종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관료제적 ‘자리’를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세대요, 그나마 그 ‘자리’가 좁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갖는 세대적 박탈감을 또래 여성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실은 남은 듯 보이는) ‘남성이라는 기득권’을 붙드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여성혐오에는 자리 경쟁의 상대로 부상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경계와 봉건적 재배치를 염원하는 바램이 담겨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

스트 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51~52.

형태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후기근대 사회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까닭에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여성의 성향에 대해서는 거부와 반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결국 ‘선택적 혼종성(elective hybridity)’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원칙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전근대적 남성 인식과 근대적 주체 인식 중 ‘나의 생존’에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남초 사이트에서 ‘먼저’ 생성되고 오프라인으로 발화된 여혐 언어들은 영페미니스트들의 저항을 촉발시켰다. 『근본 없는 페미니즘, 메갈리아부터 워마드까지』에 인터넷 젠더 전쟁을 시작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기고한 김익명은 남자 개그맨들의 팟캐스트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를 회고한다. 끔찍한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하며 정상적 사고를 하는 일반 남성들이 함께 분노함으로 연대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사회적 반응을 보고 경악했다는 것이다.⁷⁾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극단에 있다는 ‘일간베스트(일베)’와 ‘오늘의 유머(오유)’가 정신적 동반자가 되어 옹달샘을 두둔하기 시작했다” 때문이다.⁸⁾ 남자로서 ‘페미니스트’ 저서를 출간한 남학교 국어교사 최승범도 당시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기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 회사 ‘넥슨’의 성우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사서 인증했다가 계약을 해지당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노동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비판했으나 ‘메갈을

-
- 7) 유세윤, 장동윤, 유상무 등 남자 개그맨들은 “여자들은 멍청해서 머리가 남자한테 안 된다.” “처녀가 아닌 여자는 참을 수 없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2014년 2월 19일 32회 방송, 2월 26일 33회 방송 참조.
- 8) 김익명, “모든 것은 고소로 시작되었다.” 김익명 외 7명, 『근본 없는 페미니즘』(서울: 이프 북스, 2018), 32. 이론가도 아니요 특별한 소명의식에 고무된 것도 아닌 ‘평범한 여성이 동료로 생각했던 남성들의 ‘일반적’ 여성 의식에 경악하게 되면서, 김익명은 비로소 넷페미들의 분노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감싼다.'는 당원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집단 탈당 포화를 맞았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남성들의 분노 심리를 분석한 <시사In>은 대규모 절독 사태를 겪었다. 마녀 사냥 중단을 요청한 여러 진보 언론이 곤욕을 치렀다. 믿었던 <한겨레>가 <경향신문>이 <시사In>이 <오마이뉴스>가 <프레시안>이 그럴 줄 몰랐다는 남성들의 악다구니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의제에 진보적이고 다원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이,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연대하던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⁹⁾

정치적으로 극단에 있던 남성들이 여성 혐오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남성 연대'를 이루자, 영페미니스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러링' 언어들을 생산했다. 디씨 인사이드에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그대로 미러링 하는 여성들만의 갤러리가 생겨났고 이후 미러링의 언어와 방식 문제로 대토론, 갈등이 이어지면서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미러링 전략을 선택한 그룹은 '여성'과 '노마드'를 합성한 '위마드(womad)'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집결하였다. 그 공간에서는 그동안 남자들이 생산했던 수많은 여성 혐오적 단어들을 반사한 표현이 쏟아져 나왔다. "건빵남(군대 다녀와서 삭은 아저씨라서 인기도 없는 남자)" "삼초한(남자는 삼초에 한 번씩 때려야)" "싸튀충(질내사정으로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 "안경버무리(안경 쓰고 얼굴은 못생긴 남자)" "애비충(가부장적 아버지)" "허수애비(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 등의 언어가 대표적이다.¹⁰⁾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러한 언어들은 다시 남성 연대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서로를 향한 적대적 언어들은 시소처럼 상대방의 힘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점점 더 상승해가는 양상이다.

영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미러링 언어들 역시 가부장제적 남성 기대

9) 최승범, 『나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서울: 생각의 힘, 2018), 77-78.

10) 장소연, 앞의 글, 53~55.

와 페미니스트 주장 사이의 혼종성이 관찰된다. 물론, 미러링의 원칙이 남초 사이트에서 생성된 여성 혐오의 언어들 그대로 반사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여성 혐오 언어에 이미 드러난 '선택적 혼종성'이 영페미니스트의 '미러링' 언어에 반영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 '남편'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남자에 대한 혐오나 키가 작고 뚱뚱하고 안경을 낀 못생긴 남자에 대한 비하는 사실 '미러링'이 아니라면 내용상 페미니즘의 주장과 공존이 불가능하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 너머의 시스템을 상상하고 요구한다면 말이다. 이 지점에서 영페미니스트들의 미러링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론가 윤지영은 기본적으로 '남성혐오'란 불가능함을 피력한다. 혐오와 분노를 구별하면서 윤지영은 남초 집단의 여성 응시가 혐오이며, 영페미니스트들의 미러링은 혐오를 당연시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분노의 정치학이라고 해석한다.¹¹⁾

그러나 논자는 영페미니스트의 미러링 언어의 저항적 기능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수행적 영향에 주목한다. 영페미니스트가 여성의 적으로 배제하는 '한남'은 신자유주의적 수직 위계적 응시로 보자면 사회경제적으로는 '루저'이며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이고 반(反)페미니스트적인 존재이다. 반면 한남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남'이란 신자유주의가 이상화하는 개인의 스펙과 가부장제가 이상화한 '남성'의 스펙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종적' 존재이다. 더구나 개념남은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친(親)페미'이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여자에게 가장 좋은 남자의 성향과 스펙을 모두 가진 복합체이다. 물론 이런 복합체적 이상화는 한남이 이상화한 '개념남'의 미러링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 두 명중 하나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지한다는 오늘날, 그들에게 일상이

11) 윤지영,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남성혐오는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제24권(2015), 61~63.

가 되어 있는 이러한 언어들이 매일 일상의 수행성 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세상은 도래할까?

III. 영페미니스트들의 '선택적 혼종성' 전략인가 욕망인가?

'선택적 혼종성'조차 남자들이 먼저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먼저' 개념녀와 한녀를 대립시켰고 그 묘사 안에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남자에게 유리한 것들을 쪽쪽 뽑아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상태의 미러링이라고 주장하는 영페미니스트 남성 응시는 과연 '순전히' 도구로서의 미러링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까? 현실적 삶의 선택에 있어 행여 페미니즘의 자기모순을 가리는 생존 욕망이 담긴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남자들이 그러는 것은 왜 가만히 두고 영페미니스트들의 선택적 혼종성에만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묻는다면, 전자는 이미 있는 시선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그런 세상을 끝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이미 틀렸고, 후자는 틀림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기에 행여 그 수행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혼종화 담론의 이론가인 라틴아메리카 인류학자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정의에 따르면, 혼종화란 "분리된 형식으로 존재해 온 불연속적인 구조나 실천들이 새로운 구조, 대상, 실천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사회문화적 과정"이다.¹²⁾ 그러나 영페미니스트들의 미러링에 나타난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적 남성 이상의 선택적 혼종성이 과연 "새로운 구조, 대상, 실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합"일까? 그 미러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조는 무엇일까? 칸클리니를 비롯하여 혼종화 담론이 근

12)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이성훈 역, 『혼종문화, 근대성 넘어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14.

대성을 넘어가는 전략으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혼종성 개념과 구성이 “정체성, 진정성, 문화적 순수성 등의 생물학적이고 본질 주의적인 담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¹³⁾ 즉 우월한 정체성이나 발전된 문화 등을 내세워 지배/종속 관계를 정당화해온 근대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논자가 혼종화 담론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혼종화의 혁명적 기능을 긍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혼종성은 선행 제도나 관념의 견고한 벽에 구멍을 내고 흔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영페미니스트들의 ‘선택적 혼종성’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현재 영페미니스트의 선택적 혼종성은 미러링 언어에만 드러나지 않는다. 전근대나 근대 가부장제의 여성 배치가 가지는 이점과 후기 근대의 이점을 혼종적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영페미니스트 1세대인 권김현영이 전한 한 동료의 사례처럼 말이다. 영페미니스트로 살기 위해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데, 단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장의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지로서 결혼을 선택한 ‘페미니스트’동료의 이야기였다.¹⁴⁾ 모순이다. 영페미니스트를 고무시킨 급진적 사상은 “결혼은 가부장적 제도로의 편입”이며 대안으로서의 “여성 공동체”를 추구해야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처한 후기근대적 경제 구조는 젊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동의어인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가부장의 돈으로 확보되는 페미니스트의 자유가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한 사례를 전한 것일 뿐, 주변을 돌아보면 아버지, 남편, 오빠 등 남자의 경제력을 사용하면서 페

13) 칸클리니, 앞의 글, 17.

14) 권김현영, “차이에 대해 말하기, 기억과 치유의 정치학을 위하여: ‘영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계급과 문화정체성” 『당대비평』 (2001. 6월호), 240.

미니스트로 사는 선택을 한 2030 여성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된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의 물질문명 속에서 대부분의 정체성 형성기를 보낸 영페미니스트에게는 마치 〈섹스 인 더 시티〉의 여주인공들처럼 자기계발과 자본주의적 성공의 욕망과 페미니즘이 뒤섞여있다. 손희정의 고백처럼 “그 텍스트 안에서 달성된 페미니즘이란 내가 신고 싶은 구두를 사시고 원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게 가능해진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¹⁵⁾ 물론 혼종성 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혼종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은 생존의 법칙이다. 더구나 영페미니스트들이 의지하는 ‘포스트’담론 생산자들이 주장하듯(주디스 버틀러의 “구성적 주체”나 로지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주체”처럼)¹⁶⁾, 주체란 결코 고착적이거나 순수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페미니스트들은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수혜 속에서 자란, 그래서 소비자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이들”이다.¹⁷⁾ 그래서 살기 위해 나에게 유리한 인적·재정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15)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앞의 글, 108.

16) “수행성(performativity)”개념으로 문화제도 안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들이 몸의 맥락에 스며들어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버틀러에게 ‘여성’이란 없다. 버틀러는 후에 운동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여성 범주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결코 고착적 내용이나 경계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서울: 문학동네, 2006) 참조. 로지 브라이도티는 ‘여성’의 메타포로 “유목민”을 제시했다. “분류를 넘어서는, 계급 없는 단위” 그리고 “고착성에 대한 모든 관념, 욕망, 혹은 향수를 폐기해 버리는 종류의 주체”이기에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탈영토적 존재를 의미한다.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서울: 여이연, 2004), 59, 78. 다나 해러웨이는 더 나아가간다. 존재의 교란을 통해 여성 해방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인데, 실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정체성이 이미 ‘잡종’이라는 선언이다. “자연, 인간, 기계 사이의 경계를 없애 버림으로써 지배할 존재도, 피지배할 존재도 아예 본질적인 구별이 없게 하자”고 말한다. 도나 해러웨이,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서울: 동문선, 2002), 323.

17) 손희정, 앞의 글, 86.

그러나 논자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기존에 존재했던 가부장제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거절하고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평등하고 정의롭게 그 방식을 다시 짜는 시선이요 실천이다. 적어도, 페미니즘이란 가부장들이 만들어놓은 기존의 제도들 속에서 세 가지(전근대, 근대, 후기근대) 시절의 옵션을 가지고 이를 유리할 때마다 혼종적으로 사용하는 살아남기의 기술일 수는 없다. 때문에 논자는 영페미니스트들의 욕망에 드러나는 가부장들의 제도, 특히 후기근대적 신자유주의적 시스템과의 “선택적 친화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¹⁸⁾ 그 발생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로 변화되는 즈음에 생겨난 페미니즘 운동이니 피할 수 없는 실존적 현실이었으나, 가부장제가 용인해온 수직 위계적 세상을 비판하고 ‘대안’이 되는 세계를 모색하면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나도 잘 먹고 잘 쓰며 살고 싶다”는 신자유주의적 소비 주체의 욕망이 ‘여성’이기 때문에 제한받거나 불리해지는 지점에서 페미니즘 언어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에게 ‘페미니즘’이란 여전히 잔재하는 가부장적 여성 전체나 배치 속에서 여성임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되고, 후기-근대적 배치 속에서 내가 되는 것이 유리할 때는 주체 선언을 하는 방식의 살아남기를 통해 현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는 전략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가로 전근대와 근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권’(공적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덜 지는 배치나 가족 공동체의 생계와 생존비용을 버는 문제로부터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18)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란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간의 선택적인 결합이 근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주요 논제이다. 필연적인 결합으로 귀결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독립적인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이나 이 둘을 함께 잡는 주체의 의미추구에 의해 결합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것)을 움켜잡은 채, 대안적 공동체 건설을 꿈꿀 수는 없다고 본다.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담긴 선택적 혼종성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전제들 사이의 물리적 섞임일 뿐이라서 그 어떤 새로운 제도로의 화학반응이 불가능하다면, 페미니스트 주장과 실천은 그것이 혼종적이라 할지라도 '새로움'을 가져오는 화학적 변화여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여성이기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과거의 문화적 기억과 습속을 그 주장 안에 그대로 넣어 둔 상태로 전개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논자의 이러한 주장에 영페미니스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부장제가 무려 5천년이고 따라서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소위 페어플레이로 어떻게 여성해방을 이루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역사와 자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언제 내 것을 만드느냐, 주인의 무기를 빼앗아서 주인을 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생존전략이다', 라고 주장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이 영페미니스트들의 혼종적 선택 속에서도 들린다.

물론 영페미니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성이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제도적 인간처럼 각자도생하는 인간형은 아닐 것이다. 고독사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1인 사회에서 그래도 '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연대하여 조직 내 성폭력이나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범 죄에 힘을 모아 투쟁하는 모습은 여전히 공동체적 연대의 희망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페미니스트들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연대는 '여성'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여성 연대까지만이다.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제도 안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이슈에는 집단 연대의 운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워마드가 드러내는 남성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똥꼬충"이라는 호명)나 결혼이주여성, 외국노동자에 대한 조롱의 밑바닥에는 "한국 사회가 제시해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시스젠더 헤테로원주민 여성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다."¹⁹⁾ 이 지점에서 영페미니

스트인 손희정의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희생당한 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이었어도 [우리는] 그렇게 연대했을까?”²⁰⁾

IV. 후기근대적 “위험사회”와 공동체적 생존을 위한 연대

결국 젊은 세대가 남성과 여성 연대로 양분하여 갈등하는 오늘의 현상이 생존 경쟁이 생애사의 전부였고 이제 그 생존마저 경각에 달린 젊은 세대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읽어낸다면, 그리고 대중화한 영페미니스트들의 전략적 혼종성 안에도 개인과 특수집단의 이익 ‘만’을 추구하는 시대적 욕망이 담겨있다면, 그러니까 ‘생존’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그래서 마지막 연대의 끈을 남성 대 여성으로 잡은 것이라면, 이 젠더 갈등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분석과 전망은 더 보편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근대 제도의 작동방식에 대해 관심하는 벡은 후기 근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했다. 후기근대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더 이상 ‘자본과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하느냐’하는 산업사회의 과제가 아니라 한다. 이제 인류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근대적 생산품들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따라서 ‘위험의 (재)분배’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를 흔들어대는 이 위험은 역설적으로 “근대화가 오히려 잘 작동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²¹⁾ 후기-근대적 위험은 방사능 낙진처럼 비가시적이고 글로벌 경제처럼 비예측적이다. 더구나 산업사회가 생산한 위험은 지극히 상업성을 띠고 있고 전문가 의존성이 강

19) 손희정, 앞의 글, 132-133.

20) 손희정, 앞의 글, 133.

21)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40.

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축적되어 쌓인다. 물론 위험은 덜 분배될수록 좋다. 그러나 위험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멈출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정수기, 공기청정기, 특수기능마스크 등) 위험 기준과 보도를 조작한다. 어디 이뿐일까? 포스트휴먼을 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유전공학' 생산품들이 곧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백에 따르면, 후기근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위험은 위험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사람들의 생존도 위협한다. 중국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생태계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²²⁾ 1980년대 후반에 출간된 백의 이 선언을 비롯하며 혹자는 생존환경을 조절하는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오늘날의 기술을 자랑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여 그 도시 안에서 살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들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지층이 변하면서 자연재해가 글로벌하게 와도 그렇게 계속 '우리'라는 배타적인 집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결국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담론을 생산하고 운동성을 발휘하는 그룹들은 후기근대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의 예방 혹은 (재)배치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연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을 형성하고 주장하는 영페미니스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후기근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공통'으로 가져야하는 능력은 울리히 벡의 언어로 말하자면 “성찰적/재귀적 합리성(reflexive rationality)”이다.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성을 의미한다. 근대 산업사회의 정신이 “할 수 있다.” 정신이었다면, “그

22) 울리히 벡, 앞의 글, 77.

걸 왜 해야 하지?” “이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지금 이 결정이 우리 후속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것들을 생각 하며 노동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라 해도 나의 생존이 아닌 ‘우리의 생존’이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더 큰 우리-공동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²³⁾

그렇다면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지구적 생존이 키워드가 될 때, 영페미니스트들의 의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최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고사를 당한 20대 젊은이들의 생물학적 성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젊은 남성들이 외치고 있다. “남자라서 죽었다.” 영페미니스트들이 목도하고 경험하는 후기근대적 개인과 여성으로서의 억압의 교차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억압의 교차성’을 분석하고 선택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는 시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직장과 학교,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성 연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비정규직이나 알바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부당한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연대하여 기성세대의 기득권 계층과 싸워야 한다. 물론 더 거시적으로 세대 간 적대감을 내려놓고 시민 연대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다. 아니 어떤 위험은 글로벌 시민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는 어느 과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나의 결정이 아니다. 이를 위해 어떤 하위담론이 희생되어야하느

23) 백이 포퍼에 동의하면서 내렸던 마지막 결론처럼 말이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독점 소유자가 쥐고 있는 자기통제의 가능성을 자기비판의 기회로 보완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전문 또는 실무 경영의 지배에 맞서 대단히 어렵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즉 반대평가, 대안적 직무실천, 자신들의 발전결과에 대한 조직과 직업 내부의 토론, 억압된 회의주의 등. 이런 경우에 포퍼는 진정 옳다. ...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난이 아니라, 조만간 이 세계를 파괴할 지도 모르는 잘못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울리히 벡, 앞의 글, 357-358.

나의 문제도 아니다. 정체성과 연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섭당하는 방식으로 후기근대 사회의 존재론적 위험은 막을 수 없다.

V. 정체성과 연대 사이, “존재의 기공성”과 사회적 영성

개인의 사고와 수행성을 사로잡고 있는 선택적 혼종성, 그것이 전략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존의 체제가 주는 유리함을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물리적으로 섞어버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은 기존의 다양한 유리함을 내 안으로 다 끌어모으는 행위로서 기존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사를 돌아보면 종종 현재를 ‘예기적(proleptic)’으로 살아내며 현재의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개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아직 그들이 상상하는 세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안적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말이다. 전근대 가부장 사회를 살면서도 여성을 제자로 삼고 여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예수도 그런 개인이었다. 일상 속에서 미래의 이상을 현재로 끌어와 사는 사람들은 대개 ‘사건’이 된다. 예수가 살아낸 공동체적 상호작용은 권위와 답을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진 능력으로서의 존재의 흐름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적 혁명을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개인이나 공동체로서 나/우리의 답이 있으나 그것이 소통 불가능한 배타적 주장으로 갇혀 있지 않고 정체성 집단이 가진 이기심을 넘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과 인간이 진심으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존재의 흐름, 기독교 전통은 이를 ‘영성’이라고 불렀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신에게서 흘러나갔다고 느

졌던 그 능력,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와 자신이 나왔음을 느꼈던 존재의 힘 말이다. 페미니스트 조직신학자인 카터 헤이워드(Carter Heyward)는 이 존재의 흐름이 태초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존재했다고 고백한다.

태초에 ‘스스로 있는 자’는 살아서 자라고 변화하고 놀라고 애쓰고 팔을 뻗어 포용하고 반응하는 만물들을 창조했다. 창조되어진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와의 관계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과정, 즉 창조주에 대해 자신과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성을 깨닫는 이 과정을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창조주는 ‘사랑’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이 과정에 적합한 단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란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사랑하면서, 식물과 바위와 동물과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해 갔고 되어져 갔다. 그것은 좋았다. ...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혼자가 아니다. ...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흐름이다.²⁴⁾

논자는, 모든 생명체가 존재의 흐름을 느끼며 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존재의 기공성(the porosity of being)”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²⁵⁾ 인간의 생물학적 몸에 숨구멍,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 등이 있어서 내부와 외부가 교통하듯이, 우리 존재에는 존재의 숨구멍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심으로 ‘너’를 마주보는 사람은 모두가 금세 느낄 수 있지 않나. 다만, 신자유주의 사회의 무한경쟁 시스템에서

24) Carter Heyward, *Our Passion for Justice: Image of Power, Sexuality, and Liberation*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84), 43~45,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서울: 뉴스앤조이, 2018), 155에서 저자의 번역본으로 인용.

25) 백소영, “윤리적 인간의 경계, 존재의 숨구멍: 본회퍼와 류영모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85-121을 참조.

혼자 달려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으며, 닫히고 배타적인 하나의 답만을 고집하는 집단도 존재의 기공성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성서는 자기만의 답으로 가득하여 존재의 기공성을 상실한 사람을 ‘마음이 강박하다.’고 표현한다. 성령조차도 그에게는 들어갈 방도가 없다. 한편, 자기를 포기할 만큼 ‘마음이 상한’ 사람은 이 기공성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다. 즉 자기 존재 안으로 폭력적으로 밀려들어오는 타자의 의미에 압도되어 자기 존재의 경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자기 안에서 “존재의 기공성”을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 들숨과 날숨의 통로로 잘 관리한 사람은, 주체로 서서 나의 존재의 경계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이기심을 초월하고 너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관계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존재의 흐름이 상호적일 때 ‘사귀’가 일어난다. 위르겐 몰트만은 『생명의 영』에서 사귀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했다.²⁶⁾

“사귀”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며 다른 자들을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인다. “사귀”는 서로 자기를 열게 하며, 서로 자기의 몫을 주며, 서로 존경하게 한다. 사귀는 서로간의 참여 속에서, 서로간의 인정으로부터 산다. 상이한 자들이 무엇을 공동으로 가지며 공동의 것이 상이한 자들에 의하여 함께 나누어질 때, “사귀”가 생성한다. ... “사귀”는 결코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상관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파트너들은 무엇을 공동으로 가져야 하며 서로 사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사귀”에 대한 말은 무의미하다. “성령의 사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해당하는 사람들과 상관성과 상호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가 이 관계들에 대하여 작용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여 이 관계들이 자기에게 작용하도록 한다.²⁷⁾

26) 몰트만,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81.

영페미니스트인들 모두 같은 답을 가지고 있을까? 영페미니스트인 강유는 미러링 댓글로 고소당한 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모욕죄 철폐’라는 목적을 가지고 너무나 집요하게 친구를 이용하려하는 다른 페미니스트와 싸웠던 경험을 말했다. 어찌 자신의 답만 옳다고 주장하느냐고 서로 각을 세우고 갈등했지만, 자꾸 그와 마주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사례 1이 아니라 입체적인 한 명의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²⁸⁾ “입체적인 한 명의 인간” 그것이 답이 아닐까? 사람보다 사상, 신념이 먼저인 개인이나 단체는 그것이 아무리 페미니스트 단체라 해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다. 물론 평화는 항상 ‘평화스럽게’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가기 위한 갈등은 ‘건설적’이기에 지속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 그러나 답을 이미 고정된 채 ‘너(타자)’를 대면하는 ‘나(주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건 ‘나의 답이 매우 이상적이고 고매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공동체의 건설적 답은 나의 승리나 너의 승리가 아닌 우리 ‘사이에’ 도래한다. 때문에 존재의 기공을 통해 존재의 흐름을 나누는 영성은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VI. 나가는 말

“남성 혐오의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다.” “무슨 말인가, 여성 혐오가 먼저였다.” 굳게 닫힌 정체성 집단으로 양극화하여 서로를 향한 적대적 언어만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젠더 평화는 도래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야할 지구와 보다 넓은 우리-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경각에 달린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시스템과 과학 기술의 결합이 어떤

27) 몰트만, 앞의 글, 291-292.

28) 강유 “초대남모집”을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김익명 외 7명, 앞의 글, 74.

위험한 세상을 가져올지 '성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만날 길 없이 반사만 하며 등을 돌릴 상황이 아니다. 페미니즘이 현재의 시스템 '바깥'의 시선이라면, 영페미니스트들이 질문해야하는 것은 각자도생의 시스템, 지극히 개인화된 업적, 실적, 능력주의로 포장된, 그러나 잘 작동하지 않는 근대 제도의 후기 상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저항의 운동성 안에서 여성/남성으로서 연대할 뭉, 젊은 세대로서 연대할 뭉, 한국인으로서 연대할 뭉, 기독교인으로서 연대할 뭉, 다양한 정체성 공동체로서 연대할 뭉이 교차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시절에 주체나 정체성 집단으로서 존재의 힘과 경계를 지키면서, 타자나 다른 정체성 집단의 의미를 나/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하고, 상호간 존재의 흐름을 통해 공동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었다. 가부장의 답에 다른 구성원들의 의미가 포섭되는 것이 옳지 않은 것과 같이, 영페미니스트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답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다른 정체성 집단을 굴복시켜버리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여성 혐오에 담긴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택한 전략인 '미러링'조차도 그것이 계속해서 현 체제 내부의 목소리들만을 메아리처럼 울리고, 그런 반복이 영페미니스트들의 가치와 수행성을 지금의 시스템 안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물론 더 큰 과제를 위해 갑자기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는 제안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다만 나의 바운더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공동기반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논자는 보다 더 큰 범주의 우리-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통해 밝히고, 그것이 가능함을 "존재의 기공성" 개념으로 피력했다.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시스템은 "탈성적 전문가 개인들"로 하여금 한 줄로 서서 뒤통수만 보고 달리라 명령하지 마주보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논자는 외롭고 불안한 각자도생의 싸움을 싸우던 후기근대인들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공동체적 연대의 실마리를 각각 남성, 여성에서 찾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그 연대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나와 너 사이의 존재의 흐름은 부재하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일성의 답들이 반복적으로 재생·확산되었을 뿐 양 집단은 서로를 마주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종의 이벤트처럼 일베와 위마드가 오프라인으로 마주보는 일을 추진하자는 낭만적이고 견적 없는 제안으로 결론을 맺으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가 존재의 경계에서 만나는 능력인 “존재의 기공성”을 발견하고 구체적 관계 안에서 존재의 흐름을 경험해보자는 초청이다. 물론 존재의 기공을 통해 흘러들어가고 나오는 존재의 흐름이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달힌 답으로 너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서로 나의 의미를 너에게로 흘러보내고 너의 의미를 내 안에서 성찰해보는 방식으로 실험된다면, 즉 끝내 등 돌리지 않고 마주보려는 의지로 시도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정체성 형성에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 토대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 유. “초대남 모집’을 들어보셨습니까.” 김익명 외 7명. 『근본 없는 페미니즘』. 서울: 이프 북스, 2018.
- 권김현영. “영페미니스트, 넷페미의 새로운 도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넷페미사: 우리에게도 빛과 그늘의 역사가 있다』. 서울: 나무연필, 2017.
- 김익명. “모든 것은 고소로 시작되었다.” 김익명 외 7명. 『근본 없는 페미니즘』. 서울: 이프 북스, 2018.
- 몰트만, 위르겐. 김군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백소영.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서울: 뉴스앤조이, 2018.
- _____. “윤리적 인간의 경계, 존재의 숨구멍: 본회퍼와 류영모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85-121.
- 백, 율리히.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 버틀러, 주디스.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6.
- 브라이도티, 로지.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서울: 여이연, 2004.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넷페미사: 우리에게도 빛과 그늘의 역사가 있다』. 서울: 나무연필, 2001.
- 윤지영.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남성혐오는 가능한가.” 『한국여성철학』 제24권. (한국여성철학학회, 2015): 5-79.
- 장소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 정치: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7.
- 정연보.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한국여성학』 제31권 3호. (한국여성철학학회, 2015): 31-64.
- 최승범. 『나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서울: 생각의 힘, 2018.

칸클리니, 네스토르 가르시아. 이성훈 역. 『혼종문화, 근대성 넘어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해러웨이, 도나.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 서울: 동문선, 2002.

논문투고일: 2019년 3월 01일

심사계시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0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남성 vs. 여성의 배타적 정체성 집단을 형성하고 대결하는 현재의 양상을 각자도생의 생존 경쟁이 극에 달한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후속 진입 세대가 가지는 의미 추위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근대 주체로서의 역량과 자기 인식을 가진 세대이면서도, IMF 이후 더욱 좁아진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배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여성 정체성' 그룹으로 운동성을 가지게 된 '영페미니스트'에 주목하여 그 생성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였고, 영페미니스트들의 미러링 전략에 담긴 '선택적 혼종성(elective hybridity)'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가부장제적 이점과 후기근대적 이점을 혼종적으로 선택하는 영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이 이미 젊은 남성 집단이 보이고 있는 '순종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능력을 가진 개념 여성'이라는 혼종적 여성 응시의 모순을 고발하는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내용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안의 유리함을 선택적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대안적 세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존재론적 위협을 당면한 시절에 집단 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이익집단과의 선택적 연대가 가능한 기반으로 신학윤리적 개념어인 "존재의 기공성(the porosity of being)"을 제시함으로써, 억압의 교차성을 읽어내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선택적 연대를 위한 시각을 길러내는 페미니스트 전략을 촉구하였다.

주제어: 영페미니스트, 미러링 전략, 선택적 혼종성, 신자유주의적 세계, 존재의 기공성
